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 베어백 축구 대표팀 감독 사퇴

## 아시안컵 한·일전 치르기 전 통보...“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간”

핀 베어백(51·네덜란드)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어백 감독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경기장에서 일본과 치른 2007 아시안컵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베이징올림픽 때까지 남아있지만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일본전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이원재 홍보부장은 베어백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 질의응답을 시작하기 전 경기 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어백 감독은 “일본전을 치르기 전 축구협회에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이 귀국한 뒤 조만간 기술위원

회를 소집해 베어백 감독의 사의 표명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베어백 감독이 중도 사퇴할 경우 당장 다음달 22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올림픽대표팀을 지휘할 대체 사령탑을 찾는 게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어백 감독은 “앞으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2002년과 2006년 월드컵, 그리고 도하 아시안게임과 이번 아시안컵 등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베어백 감독은 또 “이번 대회를 앞두고 우승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팀의 주축 선수

들이 부상으로 빠졌고,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나쁘다”면서 “그러나 평가는 공정해야 한다. 수비는 좋았지만 충분한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런 큰 대회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며 득점력 빈곤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였다.

베어백 감독은 사임 후 계획에 대해 “향후 10년 정도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긴 휴식을 가져야 할 때다. 한국에서 올림픽대표팀과 국가대표팀을 함께 맡으면서 에너지를 잃었다. 이제는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것을 찾을 때”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고 유럽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흥미로운 제안이 온다면 고려해 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다섯 달 동안은 거절할 것”이라며 올해까지는 휴식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 ■ 축구협회 대안은?

- ① 2008년까지 베어백 설득
- ② 최대한 빨리 외국인 물색
- ③ 김호곤 감독 등에 기회를

대한축구협회가 한국 축구 차기 사령탑을 놓고 다시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핀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이 2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은 축구협회로 넘어온 상태다.

정몽준 회장을 비롯해 이회택 부회장, 이영무 기술위원장, 가삼현 사무총장 등 수뇌부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머무르고 있는 축구협회는 “일단 대표팀이 귀국한 다음 베어백 감독과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다. 그리고 기술위원회에서 감독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원칙만 전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반응에 비춰볼 때 향후 ‘포스트 베어백 체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일단 축구협회는 베어백 감독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임박한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 대비해 당분간 지휘봉을 놓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베어백 감독이 이미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쉽게 번복을 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보면 최대한 빨리 차기 외국인 사령탑을 물색하는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올림픽대표팀 사령탑의 경우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도 현재 축구협회 전무를 맡고 있는 김호곤 감독이 팀을 맡아 8강 목표를 달성한 점에 비춰 국내 지도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흥분보 코치에게 올림픽대표팀을 맡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국가대표·올림픽대표 동시에 맡아 피로감

### ■ 베어백, 왜 사퇴했을까?

핀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진 사퇴’라는 방식을 빌려 2001년부터 한국 축구와 맺어왔던 긴 인연을 끊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베어백 감독이 더 이상 한국 축구에 관여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베어백 감독은 왜 자진 사퇴를 선택했을까. 더구나 다음 대회 본선 자동출전권이란 타이틀이 걸린 아시안컵축구 한일전을 앞두고 축구협회 임원들에게 경기 직전 미리 사퇴를 통고한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면도 있다.

베어백 감독의 속내를 속속들이 파악할 순 없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볼 때 사퇴 결정은 자신의 남은 지도자 생활을 멀리 내다보는 전망과 개인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결단으로 보인다.

베어백 감독이 한일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을 동시에 맡으면서 에너지를 잃었다. 이제 힘을 되찾고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한 점은 심경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결국 베어백 감독은 “앞으로 다섯 달 동안에는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진로를 찾겠다는 쪽으로 결심을 굳혔던 셈이다.

또 베어백 감독의 부친이 병환으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상태라 당분간 유럽에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봤지?” 영웅의 환호

28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축구 일본과 3~4위전에서 한국의 이운재 골키퍼가 승부차기에서 일본의 마지막 키커의 공을 막아내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치우·오범석 있어 한국 축구 미래 밝다

### 차세대 수비수 자리매김

‘그들이 있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다’ 축구대표팀의 ‘젊은 수비수’ 김치우(24·전남)와 오범석(23·포항)이 2007 아시안컵 축구 무대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수비 자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김치우와 오범석은 지난 28일(한국시간) 밤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경기장에서 치러진 일본과 3~4위전에 좌우 원백으로 선발출전, 전후반과 연장 120분 풀타임은 물론 부담스러운 승부차기 골까지 터뜨리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말 그대로 ‘젊은 피’의 승리였다. 김치우와 오범석은 조별리그 3차전 인도네시아전을 시작으로 두 경기 연속 연장전으로 치러진 이란과 8강전 및 이라크와 4강전에 모두 선발출전에 죄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강철 체력’을 입증했다.

김동진(제니트)-송종국(수원)조를 제치고 당당히 베어백호의 주전 수비수 자리를 차지한 ‘김-오 듀오’는 심리적 부담감이 큰 일본과 3~4위전에서도 뛰어난 수비력과 더불어 활발한 오프백을 펼쳐보이며 답답한 공격력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했다.



김치우

오범석

3경기 연속 연장 혈전에 나섰다고 믿기지 않는 활동량을 선보인 ‘김-오 듀오’는 승부차기에서도 침착하게 골을 성공시켜 한국이 3위를 차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특히 김치우는 6번째 키커로 나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있게 슛을 날려 골을 성공시켜 일본의 마지막 키커에게 압박감을 안겨주면서 이운재의 선방을 이끌어내며 숨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오범석은 조별리그 1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시련을 겪었지만 이후 뛰어난 태클능력을 앞세운 대인방어와 활발한 오프백으로 김치우와 함께 김동진-송종국조를 벤치로 밀어내고 태극호의 주전자리를 꿰찼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설기현 “부상 공백 걱정 마”

### 두 차례 평가전 풀타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설기현(28·레딩FC)이 두 차례 평가전에서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부상 공백에 대한 걱정을 씻어냈다.

설기현은 29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끝난 잉글랜드 3부리그 브라이튼과 원정 평가전에서 오른쪽 날개로 풀타임을 뛰었다.

1골1도움을 올리며 6-1 대승을 이끈 지난 26일 4부리그 브렌트퍼드와 평가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이다.

설기현은 이날 전반 초반 두 차례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는 등 몇 차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후반 13분 자책골로 선제골을 내준 레딩은 르로이 리타가 헤트릭을 달성하며 3-1 역전승을 거뒀다.

설기현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시간이 가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 다른 선수들보다 프리시즌을 늦게 시작해 감독님이 경기를 통해 체력을 끌어올리라는 의미에서 풀타임 출전을 시키는 것 같다”면서 “수술 후 많이 쉬어 다소 힘들지만 남은 시간 빨리 체력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거미손’ 이운재가 만든 3위

### 아시안컵 축구, 숙적 일본 승부차기로 꺾어

처절한 혈투 속에 타오른 한국 축구의 투혼이 숙적 일본을 꺾었다. 축구대표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으로 숙명의 라이벌 일본을 꺾고 2007 아시안컵축구에서 3위에 올랐다.

핀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8일 밤(이하 한국시간) 인도네시아 팔렘방 자카바링 경기장에서 열린 3~4위 결정전에서 일본과 전·후반과 연장, 120분에 걸친 사투를 겪었지만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수문장 이운재의 마지막 선방에 힘입어 6-5로 이겨 3위를 차지, 2011년 차기 대회 본선 자동

출전권을 따냈다. 한국은 후반 11분 중앙수비수 강민수가 레드카드를 받고, 이에 항의한 베어백 감독 등 코치진 3명이 한꺼번에 퇴장당하는 조류의 사태를 맞았다. 하지만 위기에서 몸을 내던진 태극전사들

의 육탄방어가 후반과 연장 전후반 계속된 일본의 파상공세를 견뎌냈고, 마침내 승부차기 6-5에서 이운재가 하늘 나옴다게의 킥을 막아내 짜릿한 승리를 일궈냈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고작 3골밖에 뽑아내지 못하는 극심한 골결정력 부족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과 역대전적에서 38승19무12패(승부차기 승리는 무승부로 기록)로 우위를 지켰고, 7월 불패의 신화도 이어갔다. 적어도 일본에는 질 수 없다는 한국의 오기가 이뤄낸 극적인 승리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